

순천바이오센터, 지역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 속도

스마트 챔버·표준화 생물 전환 기반 전략 제시 농생명 자원 제품화 추진...미래 성장동력 창출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가 정부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생물전환 기반 바이오소재 산업화와 지역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바이오센터는 최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서울 K-바이오 위크: 그린바이오

미래전략 포럼'에 참석해 정부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로드맵을 공유하고, 미래 바이오산업 대응 전략과 지역 산업 연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포럼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31년을 목표로 인공지능 기반 '그린바이오 플랫폼' 구축과 지역 중심 혁신 생태계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그

린바이오 육성 전략을 제시했다. 농업 소재를 식품·화장품·의약품·바이오소재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미래 산업 육성 방향이 핵심이다.

순천바이오센터는 전국 최대 생물자원을 보유한 전남도의 강점과 순천의 농생명 기반을 활용해 생물전환(Bioconversion) 기술 중심의 차별화된 그린바이오 산업 모델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순천바이오센터는 단순 재배 중심의 스마트팜을 넘어 '스마트 챔버(Smart Chamber) 기반 표준화 생물전환 산업'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챔버를 활용한 생물전환 원료 생산, 기능성 성분 증폭 및 고부가가치 소재 산업화, 비표준화 전통 발효를 넘어서는 표준화 생물전환 기술 확산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스마트 챔버는 광·온도·습도·양액·생육 조건을 정밀 제어해 기능성 성분이 강화된 바이오 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후와 계절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표준화된 원료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균주·효소·공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물전환 기술을 접목해 농생명 자원을 기능성 식품,

화장품, 바이오헬스 소재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순천바이오센터 전략의 핵심이다.

특히 순천바이오센터는 연구개발을 넘어 실질적인 산업화와 기업 연계 성과 창출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역 기업인 에프오엔은 생물전환 원료를 활용한 반려동물 관련 제품을 출시하며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생물전환 기술 기반 기능성 소재가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순천바이오센터가 개발 및 지원한 생물전환 원료 기반 식품 및 화장품 제품

들도 지역 내의 소비자들에게 소개되며,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렀던 농생명 자원이 실제 제품화로 이어지는 산업화 모델 구축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순천바이오센터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국가 그린바이오 정책 방향과 연구센터가 추진 중인 생물전환 기반 산업화 전략이 높은 연계성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스마트 챔버와 표준화 생물전환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바이오소재 산업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보성군은 최근 군민의 문화·여가·복지 환경의 대전환을 이끌어갈 복합커뮤니티센터 '보성행복마루' 개관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보성군청

“문화·복지·체육 한번에” 보성행복마루 개관 총사업비 410억 투입...상설전시관·주민 자유평간 마련

문화·복지·체육을 총망라한 보성 복합 문화공간 '보성행복마루'가 문을 열었다. 15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군민의 문화·여가·복지 환경의 대전환을 이끌어갈 복합커뮤니티센터 '보성행복마루' 개관식을 개최했다.

개관식에는 김철우 보성군수를 비롯해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

진), 김경열 보성군의회 의장, 김재철·이동현 전남도의회 의원, 기관·사회 단체장, 주민 등 1000여명이 함께했다.

군은 네이밍 선포식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기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아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이름을 '보성행복마루'로 정했다.

보성행복마루 1층 상설전시관과 3층 주민 자유평간에서는 개관을 기념해 민화전

시회와 보성군 역대 관광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가 함께 열려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보성행복마루'는 총사업비 41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6160㎡,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됐다. 보성군의회 청사를 비롯해 190석 규모의 보성소리공연장,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상설전시관 등 문화·복지시설과 14개 레인 규모의 볼링장, 롤러장, 스마트체육관 등 체육 시설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이다.

또 공유오피스와 회의실, 주민 자유평간 등 주민 소통과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을 마련했으며, 지상·지하 2200㎡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해 보성을 시가지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우 군수는 "이번에 개관한 보성행복마루는 군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아이를 키우며 건강한 여가를 즐기는 행복한 공간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을 위한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mt66@gwangnam.co.kr

국가무형유산 구례향제줄풍류 19일 공연 광주 예술의전당 소극장·남도 풍류 조영

구례군 국가무형유산 구례향제줄풍류가 오는 19일 광주 무대에 처음 오른다. 구례향제줄풍류보존회는 19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구례향제줄풍류 빛고을 순회공연을 개최한다. 광주에서의 공식 공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례향제줄풍류는 1985년 국가무형문화재 제83-1호로 지정된 전통 기악 합주다. 거문고를 중심으로 단소·대금·피리·가야금·해금·양금·장고가 어우러지는 방중악으로, 선비들의 풍류 전통을 오늘날까지 잇고 있다.

구례향제줄풍류보존회보존회는 정기공연과 국악교실 등을 통해 전승 기반을 다졌으며, 지난해 화암사 보제루에서 지정 40주년 기념공연을 열었다.

이번 공연은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출범을 앞둔 시점에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행정 통합이 가시화될수록 각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구례가 40여 년간 지켜온 남도 전통음악을 광주 시민과 나누는 자리가 된다.

공연은 본풍류·잔풍류·뒤편풍류 3부로 구성된다. 본풍류에서 다스름, 본영산, 중영산으로 문을 연 뒤, 잔풍류에서 세령산, 가락달이, 상현도드리, 세환입, 하현도드리, 영봉도드리, 타령, 군악을 펼치며 구례향제줄풍류 특유의 장중하고 섬세한 선율을 선보인다.

구례군 관계자는 "구례향제줄풍류는 1985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40여 년 동안 수많은 전승자와 보존회원들의 헌신 속에서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 구례의 소중한 유산이다"며 "이번 순회공연이 구례의 찬란한 전통문화가 빛고을 광주 시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김규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구례군 국가무형유산 구례향제줄풍류 모습.

사진제공=구례군청

“여수 국동항서 밤바다와 함께 특별한 추억 만들어요”

'국동항 한밤의 피크닉' 운영 피크닉·먹거리·버스킹 테마 관광객 유입·상권 활력 기대

여수시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국동항 수변공원 일원에서 '국동항 한밤의 피크닉'을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여수만의 차별화된 관광·문화 콘텐츠를 통해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국동항 한밤의 피크닉' 공간은 피크닉 존, 먹거리 프리마켓 존, 버스킹 존 등 3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먼저 '밤바다 피크닉존'에서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밤바다를 여유롭게 즐



여수시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국동항 수변공원 일원에서 '국동항 한밤의 피크닉'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제공=여수시청

길 수 있도록 '여수엔' 앱 가입자를 대상으로 돛자리(피크닉 매트)를 대여해 준다.

식도락가를 위한 '먹거리 프리마켓'

은 여수 특산물과 로컬 식재료를 활용한 '여수 미식회' 콘셉트로 운영된다. 국동항 활어 컵돌이, 여수섬성어묵, 돌산갓김치떡볶이, 여수동백떡볶이 등 여수 특

색을 담은 메뉴를 맛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매주 금·토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귀를 즐겁게 할 '국동항 밤소리 버스킹' 공연이 열린다. 라이브 음악과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 인플루언서 특별공연 등 총 42회의 다채로운 무대가 마련될 예정이다.

'국동항 한밤의 피크닉'은 6월까지 매주 금·토·일요일에 시범 운영하며, 7월 1일부터는 매일 상설 운영으로 전환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국동항 수변공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야간 피크닉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야간경관을 한층 보완해 여름 국동항에서 여수 밤바다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곡성, 공유주방 조성·먹거리·돌봄 연계

'온마을 돌봄밥상' 특별교부세 7000만원 확보

곡성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온마을 돌봄밥상'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온마을 돌봄밥상'은 주민 주도의 먹거리 나눔과 돌봄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심사를 거쳐 곡성군이 비롯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선정됐다.

군은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7000만원을 투입해 죽곡면에 공유주방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유주방은 반찬과 도시락 등을 조리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며,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운영하는 돌봄체계가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죽곡면 주민들이 자발적으

로 운영해 온 '함께나눔 밥상'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군은 죽곡면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와 협력해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 먹거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반찬 나눔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고령화와 신체적 제약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는 주민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하고, 안부 확인과 건강 상태 확인을 병행하는 농촌 돌봄공동체 활동도 연계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온마을 돌봄밥상 사업은 먹거리 지원과 함께 주민이 이웃을 살피는 공동체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돌봄체계가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ews10

고흥, 356가구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에너지 절감 실적 달성...1200만원 인센티브

고흥군은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하반기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참여자 가운데 에너지 사용량 절감 실적을 달성한 356가구에 총

1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가에서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 경우 감축 실적

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현금 등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전국 단위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군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단 배포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누리집(cpoint.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입하거나 가까운 읍·

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에너지 절약을 통해 생활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도다"며 "인센티브는 사전에 참여 신청한 경우에 한해 지급되는 만큼 많은 군민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gwangnam.co.kr